

# 품질경영 '우등생' SK온... 국제 최고 수준 공인

한국인정기구에서 국제공인기관으로 인정받아  
자사 배터리 셀 품질평가장비 정확한 측정값 호평  
2017년부터 자체측정역량 업그레이드... 값진 결실

SK온이 최고 수준의 품질경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품질 교정 및 측정 역량을 선제적으로 육성한 결과다.

SK온은 8일 SK온 품질본부 산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 산하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교정 역량이 보다 강화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교정은 측정 장비의 정확도를 보증하기 위해 측정 값을 표준 값에 맞게 조정·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KOLAS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인정

제도를 확립해 제품·서비스 등의 안전과 품질을 평가하는 시험·검사·교정 기관들을 공인하고 있다.

SK온은 중방전기온도 및 온습도 챔버 등과 같은 자사 배터리 셀 품질 평가 장비들이 전압·전류·온도·습도 등 4대 항목에 대해 정확한 측정 값을 갖는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앞서 SK온은 지난 2017년부터 품질 교정 및 측정 역량을 선제적으로 키워 왔다. 구체적으로 품질 교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평가 장비들이 정확한 측정 값을 표출

하도록 관리 노하우를 쌓아 왔다. 현재 SK온이 자체 발행하는 교정성적서는 전 세계 65개국 74개 인정기구로부터 국제 공인성을 보장받고 있다.

SK온은 4년 전 최초 인정 획득 이후 이번 첫 갱신 심사에서 우수 품질 검증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인정 획득에 따라 국제 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받은 SK온은 측정 장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제 표준에 따라 교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SK온은 독자 공인교정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외부 기관을 활용할 때보다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상적으로 배터리 제조기업들은 자사 배터리 평가 장비가 균일한 성능을 유지하도록 매년 외부 공인교정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 및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

예필수(왼쪽 네번째) SK온 품질본부장과 김명훈(세번째) SK온 개발품질실장등 SK온 관계자들이 6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정을 획득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다. 예필수 SK온 품질본부장은 "SK온은 이번 인정 획득과 인정 범주 확대로 국제적

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배터리 품질보증 프로세스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SK온은 안전성 등 배터리 품질을 강화하

고, 이에 기반이 되는 품질경영체계 또한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찬 기자 gskim@skyl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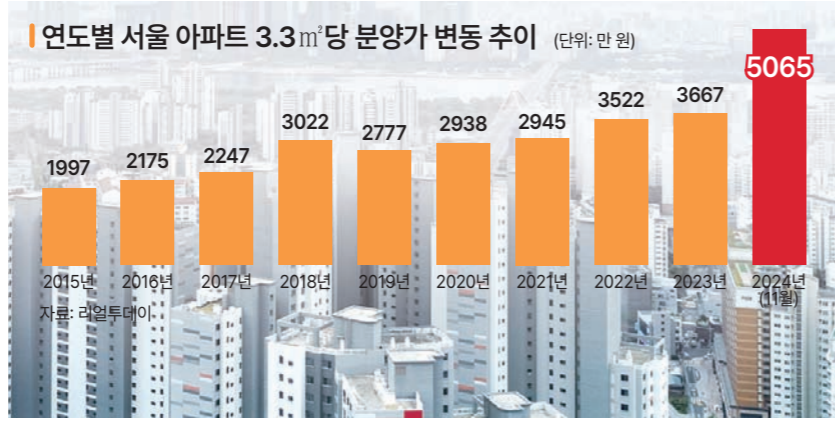
##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 5000만 원 돌파

주거불평등 심화 우려 목소리  
전문가 "내년도 상승세 지속"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올해 처음으로 3.3㎡(평)당 5000만 원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 대비 38% 상승한 역대 최고치다.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가 두 배 이상 급등하며 주거비 부담과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신규 주택 공급 부족과 건설비 상승 등을 이유로 내년도에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8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506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연간 평균 분양가(3667만 원)보다 38.1% 상승한 수치다. 1년 새 약 1400만 원 가까이 뛰었다. 특히 광진구는 3.3㎡당 평균 분양가가 1억16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4.1% 급등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장동 옛 한강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포제스한강'의 고분양가(1억3880만 원)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강남구 '청담 르엘'(7563만 원)·서초구 '래미안 원랜드스'(6893만 원)·송파구 '잠실 래미안아이파크'(5496만 원) 등 서울 주요 지역에서도 각 자치구 최고 분양가를 경신하는 단지가 잇따라 등장했다.

이처럼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 경쟁률은 오하려 상승했다. 올해 서울의 청약 1순위 평균 경쟁률은 122.4대 1로 2023년(56.9대 1)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신규 주택 공급 부족과 신축 아파트에 대

한 선호도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내년도에도 분양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건설비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가 여전한 데다 인기 지역에서는 고분양가에도 높은 수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공급 정책과 주거비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임한성 기자 hsrin@skyledaily.com

## 국내 리츠 시장 100조 원 시대... 투자 지평 넓힌다

규제완화와 금리인하가 불러올 투자 매력 상승

국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이 도입 23년 만에 자산 규모 100조 원을 돌파하며 성장의 전환점을 맞았다. 국토교통부의 규제완화와 다각화된 투자 대상 확대, 금리인하 기조는 리츠 시장의 확대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8일 리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1월 현재 국내 리츠 개수는 395개·자산은 100조7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02년 6000억 원 수준이었던 자산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성장했다. 특히 2020년 이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며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 상업용 빌딩·주택·물류센터 등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배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운용 리츠의 수 역시 2002년 4개에서 올해 395개로 대폭 증가하며 시장 확대를 증명했다.

리츠 시장의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것은 국토부의 정책 변화다. 리츠의 투자 대상이 기존 오피스·주택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산업단지·부동산 금융상품 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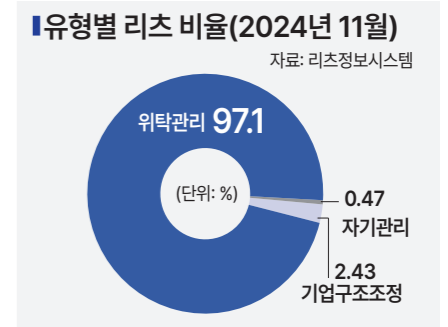
확장됐다. 이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과 투자 다각화를 통해 리츠의 외형 성장을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리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불필요한 보고 의무 폐지·월 배당 허용·공모 리츠의 인수합병(M&A)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기대할 수 있다.

리츠는 금리인하 국면에서 더욱 주목받는 투자처다. 금리가 낮아지면 리츠의 자금 조달 비용이 감소하고 이는 투자자 배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재 국내 상장 리츠의 시가배당수익률은 연 5~8%로 투자 매력도가 높은 수준이다.

국내 리츠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리츠 도입 시기가 비슷한 일본과 싱가포르의 시장 규모는 국내의 20배 수준이다.

한국리츠협회는 2025년까지 국내 리츠 자산 목표액을 150조 원으로 설정하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리츠 전문인력 양성·자산관리회사(AMC)의 역량 강화·정보 접근성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다.

리츠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투자 수단으로 국내 금융시장 내 중요성을 높여가고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과 시장의 성숙도가 더해지면 리츠는 더욱 강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 강화가 리츠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국내 리츠 시장이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리츠 시장은 이제 막 100조 원의 문을 열었다. 자산 규모를 넘어 시장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임한성 기자 hsrin@skyledaily.com



### 세무 패밀리 오피스 (TFO) 모집

법인컨설팅의 명가 '피플라이프'에서 기업컨설팅을 같이 할 파트너 세무사 단체 및 개인 세무사를 초빙합니다

<b>TFO</b> (Tax Family Office)	당사 기준조직 및 시스템과 세무사의 결합으로 Win-Win 관계를 형성하고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최고의 세무패밀리오피스 네트워크 구축
-----------------------------------	--

- 대상: 단체 (세무사회 및 세무법인), 개인세무사
- 담당업무: 기업경영 리스크 컨설팅 / 절세설계
- 특전사항
  1. 위촉축하금: 100만원 (설계사 등록 시 1회 지급)
  2. 연구개발비 선지원: 1~6개월: 매월 50만원 (확정지급)  
7개월 이후: 매월 10~50만원 (매 분기 업적평가 후 차등지급)
  3. 성과수수료 및 유지수수료: 당사 FA들과 동일

피플라이프
검색
Q
전화
☎
02-6909-2036

피플라이프는 국내 최초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시스템 개발 17년 업력의 법인컨설팅 노하우 및 분업화, 컨설팅, 네트워크, 교육시스템 등 4대 경쟁력을 보유한 명실상부 최고의 중견·중소기업 컨설팅 전문회사입니다

